스위스 올해의 풍경.

스위스가 선정하고 보호하는 풍경 10 선

수로 마을과 농경 마을 풍경
습지 숲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피라미드 있는 계곡
가톨릭의 신성함이 숨 쉬는 마을과 야생 건초 만드는 들판
도심 근교 농경지와 지속가능한 공원

스위스에는 풍경 보호 재단(Swiss Landscape Conservation Foundation)이 있다. 자연보호나 전통문화 보호와는 조금 결이 다른데, 자연환경부터 독창적인 경관 시스템까지, 이 재단은 풍경에 관련한 모든 것을 고려한다. 우리나라에서도 "경관보호구역"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, 명승지, 유적지, 관광지, 공원, 유원지 등의 주위,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, 철도,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뜻한다. 2018 년에는 첫 번째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보령 소황사구가 지정되기도 했다.

스위스 풍경 보호 재단은 2011 년부터 "올해의 풍경"을 선정하고 있는데,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들은 어디일지, 수상에 빛나는 풍경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진다. 수상 1 회인 2011 년부터 10 년을 맞이하는 2020 년까지 그 주인공들을 만나본다.

1. 2020 년 올해의 풍경: 발레(Valais) 주 수로 마을
발레주 상부의 햇살 좋은 산속 수로 풍경이 선정되었는데, 손넨베르게(Sonnenberge)로 알려진 지역으로, 나터스(Naters), 아우서베르크(Ausserberg), 엑거베르크(Eggerberg), 발트쉬더(Baltschieder) 마을이 포함된다. 수 세기에 걸쳐 형성된 독특한 문화 지형도 갖춘 곳으로, 재래식 수로와 농경 방식 덕분이다.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2020 년 스위스 풍경 보호 재단에 의해 올해의 풍경으로 선정되었다.

2. 2019 년 올해의 풍경: 이베르거에그 고개(Ibergeregg Pass)의 습지 숲
고지대 및 저지대 습지가 있는 방대한 지역으로, 숲이 섞여 있는데, 슈비츠(Schwyz) 주의 이베르거에그 고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습지 숲 풍경이다. 습지 지대의 많은 부분이 말 그대로 손타지 않았는데, 그렇기 때문에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에 귀한 서식지가 되어주고 있다. 이 대단한 풍경은 알터 슈비처베그(Alter Schwyzerweg) 트레일을 따라 감상할 수 있다.

3. 2018 년 올해의 풍경: 프리부르(Fribourg)의 신성한 풍경
프리부르 근교의 잔네 바신(Saane Basin) 풍경은 그림 같고, 평온하다. 약 17km 의 하이킹 트레일이 수도원, 수녀원, 예배당,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이어진다. 이런 신성한 풍경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가톨릭의 전통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.

4. 2017 년 올해의 풍경: 아레-하그넥(Aare-Hagneck) 수로
베른(Bern) 주에 있는 아레-하그넥 수로의 복원과 강물 수력발전은 발전과 자연보호의 절묘한 조합을 보여주는 예다. 주변의 습지대는 여유 있게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장소다.

5. 2016 년 올해의 풍경: 이젠탈(Isenthal) 야생 건초 만들기
우리(Uri) 주에 있는 이젠탈 계곡에서 야생 건초를 만드는 것은 100 년이나 된 전통으로, 지금까지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. 매년 여름 농부들은 고지대 알프스 들판으로 올라 기다란 낫으로

손수 풀을 벤다. 늦여름 기나긴 산속 하이킹 중에 만나는 옛 정취 물씬 풍기는 풀내음보다 더 낭만적인 일이 있을까?

6. 2015 년 올해의 풍경: 인너호덴(Innerrhoden)의 드문드문 자리한 농경 정착촌
아펜첼(Appenzell)의 인구 밀도가 희박한 풍경은 스위스를 대표하는 풍경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것 중 하나다. 첫눈에 보기에는 가옥들이 무작위로 자리한 것처럼 보이지만, 사실은 각 가정의 생계 방식에 따라 필요한 위치에 의도적으로 지어진 것이다. 이 풍경은 전통, 이 지역 건축 양식, 스위스의 농촌 성격을 잘 보여준다.

7. 2014 년 올해의 풍경: 발레 디 무지오(Valle di Muggio)
발레 디 무지오는 스위스 최남단에 자리한 계곡으로, 브레기아(Breggia) 계곡부터 몬테 제네로소(Monte Generoso)까지 뻗어있다.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는데, 문화와 다채로운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있다. 석회암으로 이뤄진 산의 가파르고 굴곡 있는 윤곽을 따라 습지 숲과 마른 산림지가 풍요롭게 자라난다. 역사적인 노새길은 하이커들을 유혹한다.

8. 2013 년 올해의 풍경: 캄파뉴 쥬네부아즈(Campagne genevoise)
“캄파뉴”라는 뜻은 전형적인 시골 풍경을 뜻하는데, 도시 환경과 대조된다. 이곳의 그림 같은 풍경이 제네바(Geneva)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끊임없는 영감을 선사해 왔다. 이곳의 농경지는 주민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왔을 뿐만 아니라, 다채로운 동식물에게 중요한 서식지가 되어주고 있다.

9. 2012 년 올해의 풍경: 비르스파크(Birspark) 풍경
도회적인 비르스파크 풍경은 바젤란트(Baselland) 및 졸로투른(Solothurn) 주에 걸쳐 있는데, 라우펜탈(Laufental) 입구에 있는 앙엔슈타인(Angenstein)부터 비르스(Birs) 강이 라인(Rhine) 강과 만나는 지점까지 뻗어나 있다. 그린 및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데, 주변부 전체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. 시민들이 잠시 들러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다양하게 자리해 있다.

10. 2011 년 올해의 풍경: 발 시네스트라(Val Sinestra)
발 시네스트라의 하부는 빼곡한 숲과 가파른 언덕이 있는 계곡이다. 풍경은 계곡의 상부 지대에서 개방되는데, 숲과 들판, 목초지가 번갈아 등장한다. 발 시네스트라는 먹는 샘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, 프라 산 페더(Prà San Peder) 아래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피라미드와 놀라울 정도로 다채로운 야생화로도 유명하다. 낭만적인 발 시네스트라는 하이커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해 준다.

자료제공: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.MySwitzerland.co.kr

Switzerland Tourism Korea
77 Songwol-gil, Jongno-gu, Seoul 03165
MySwitzerland.com